

# 解説

## 1 綿業会館 めんぎょうかいかん Mengyo Kaikan Hall

昭和初期、日本は紡績業で英国を押さえ綿製品輸出世界一となり、大阪は“東洋のマンチェスター”と謳われました。綿業会館は「日本の綿業の進歩と発展」を目的に、会員制倶楽部の会館として建設、紡績業の黄金時代の象徴といえる風格のある建物です。

In the early years of the Showa period, Japan overtook the U.K. in the spinning industry to become the biggest exporter of cotton products in the world. Osaka was called “the Manchester of the East.” The hall was built as a members-only clubhous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Japan’s cotton industry. This stately building symbolizes the golden age of the spinning industry.

昭和初期、日本紡織業は英国を一躍して世界綿製品輸出第一大国、大阪は“東洋の曼徹斯特”と謳われ、綿業会館は一家員制倶楽部而建、旨在促進“日本棉業の進歩と発展”。这是一座象征纺织业黄金时代的风格独特的建筑物。

쇼와시대 초기, 일본이 방직업으로 영국을 누르고 세계 제일의 면제품 수출국으로 우뚝 서면서 오사카는 ‘동양의 맨체스터’라 칭송받았습니다. 면업회관은 ‘일본 면업의 진보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회원제 클럽회관으로서 건설된 건물로 방직업의 황금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풍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2 津村別院(北御堂) つむらべついでん (きたみどう) Tsumura Betsuin Temple (Kita-mido)

1597年この地に移転した津村別院は、1年後に南側に建立された難波別院と共に「北御堂さん、南御堂さん」と呼ばれ、この二つの院を結ぶ道路であることが「御堂筋」の名の由来となっています。

The Tsumura Betsuin Temple was relocated to this site in 1597. One year later, the Namba Betsuin Temple was built to the south, and the two temples came to be known respectively as Kita-mido and Minami-mido. Midosuji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road connects these temples.

津村分寺于1597年移建到这里，它与一年后在其南侧建造的难波分寺一起被称为“北御堂、南御堂”。连通两个分寺的道路“御堂筋”的名称即由来于此。

1597년에 이 곳으로 자리를 옮긴 쓰무라(津村) 별원은 1년 후에 남쪽에 건립된 난바(難波) 별원과 함께 ‘기타미도(北御堂)상, 미나미미도(南御堂)상’이라 불렸으며, 이 두 별원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하여 ‘미도스지(御堂筋)’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 3 御霊神社 ごりょうじんじや Goryo Jinja Shrine

明治時代、御霊神社に常設された文楽座は日本初の文楽常設小屋で、後の国立文楽劇場のもととなりました。文楽をはじめ上方芸術、伝統文化を育て、大阪人の社交の場・船場商人たちの商談の場として栄えました。境内には「御霊文楽座跡」の石柱が、また「文楽座の跡」のブロンズ製床本型の記念碑が建てられています。

Bunrakuza, which was established permanently at the Goryo Jinja Shrine during the Meiji period, became Japan’s first permanent bunraku theat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Bunraku Theatre. Bunrakuza helped cultivate kamigata art and traditional culture including bunraku, and thrived as a venue for social gatherings by Osaka people and business negotiations among Semba merchants. The precincts are home to a stone pillar engraved with the words “Former Site of Goryo Bunrakuza” and a joruri-book-shaped bronze monument engraved with “Former Site of Bunrakuza.”

明治时代在御灵神社的文乐座是日本第一个文乐(木偶净琉璃戏)的常设小屋，是后来国立文乐剧场的前身。这里作为文乐剧以及京都大阪地区的艺术、传统文化的培育之地，以及大阪人的社交场所、船场商人谈生意的场所而兴盛起来。院内有“御灵文乐座遗迹”的石柱，还建有“文乐座遗迹”的青铜制剧本模型的纪念碑。

메이지 시대에 고료(御霊)신사에 일본 최초의 분라쿠(文樂)시설로 상설된 분라쿠자(文樂座)는 후에 국립 분라쿠 극장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분라쿠를 비롯한 가미가타(上方)예술, 전통문화를 육성하며 오사카 사람들의 사교장·젠바(船場)상인들의 상담 장소로 변형하였습니다. 경내에는 ‘고료 분라쿠자 터’의 돌기둥과 분라쿠 대본을 본뜬 청동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 4 大阪ガスビルディング おおさかがすびるでいんぐ Osaka Gas Building

御堂筋に面した巨大な客船を思わせる白亜のビル。太平洋戦争中はその白い外装に自社生産のコールタールで真っ黒に迷彩塗装を施し空襲を避けました。ハイカラな食堂やホールは大阪の文化の拠点として広く親しまれました。

Located on Midosuji, this white-walled building looks like a huge passenger liner. During the Pacific War, the building was painted jet-black with coal tar manufactured in-house as camouflage against air raids. The stylish cafeteria and hall attracted many people as the cultural center of Osaka.

面朝御常筋而建的白墙建筑，让人联想到巨大的游船。在二战期间，为了避免遭到空袭，用公司生产的煤焦油涂成黑色，形成保护涂层。时尚的餐厅和大厅作为大阪文化的中心广为人们喜爱。

미도스지(御堂筋)도로에 접한 거대한 객선을 연상시키는 백악의 빌딩. 태평양전쟁 중에는 하얀 외장에 자체 생산의 콜타르로 새까맣게 위장무늬 도색을 하여 공습을 피했습니다. 멋스러운 식당과 홀은 오사카 문화의 거점으로서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 5 大阪倶楽部 おおさくらぶ Osaka Club

大正元年、「大大阪」といわれた繁華の時代に英国風の社交クラブ「大阪倶楽部」の専用会館として財界人らが設立。南欧風の様式に東洋風の手法が加えられた重厚な建物です。

In 1912, the Osaka Club was established by businessmen as an exclusive hall of the Osaka Club, an English style social club, during the period when Osaka was called Dai-Osaka (Great Osaka) for its prosperity. This grand building combines the southern European style with Oriental techniques.

大正元年(1912年)被誉为“大大阪”的繁荣时代，由商业界人士设立的英式社交俱乐部“大阪俱乐部”的专用会馆。建筑物是在南欧的建筑风格中融入了东洋手法，显得极为厚重。

다이쇼 원년(1912년), ‘대 오사카’라고 불리던 번영의 시대에 영국풍의 사교 클럽인 ‘오사카 클럽’의 전용 회관으로 재계인들이 설립한 남유럽풍 양식에 동양풍 수법이 가해진 중후한 건물입니다.

## 6 旧住友ビルディング きゅうすみともびるでいんぐ Old Sumitomo Building

住友財閥の総本店となるこのビルの建設には5年以上の歳月が費やされ、1930年に全館が完成しました。当時「東洋のルネサンスの曙を告げる名作」と賞賛されました。外観には姫路城の石垣にも使用された竜山石が使用されています。

It took more than five years to construct this head-office building of the Sumitomo financial group, which was finally completed in 1930. The building was promptly acclaimed as a masterpiece heralding an Oriental Renaissance. The exterior is made of Tatsuyama stone, which was also used to build the walls of Himeji Castle.

这栋大楼是住友财阀的总部，耗费5年多时间建成，1930年全部场馆竣工。当时被称赞为“宣告东方文艺复兴曙光到来的杰作”。外墙采用了龙山石材，这种石材在姬路城石墙中也有采用。

스미토모 재벌의 총 본점이 되는 이 빌딩은 5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건축되어, 1930년에 건물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양 르네상스의 새벽을 알리는 명작’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외관에는 히메지성(姫路城)의 돌담에도 사용된 응회암의 일종인 용산석이 사용되었습니다.



大阪の近代名建築を みんなで一緒に歩こう！